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탐라는 퀴어> 개최 선언 기자회견 보도자료

일시: 2018년 8월 31일 11시

장소: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주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연대참여 단체: 제주대 퀴어모임 퀴어움 QUTE, 제주녹색당, 청년민중당, 정의당, 평화나비

1. 취지발언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신현정

축제의 이름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입니다.

작년 10월, 제주에서 우리는 행정의 마찰과 혐오세력의 음해 속에서도 뜨거운 목소리로 하나 되어 퀴어해방을 외쳤습니다. 신산공원에서 시청까지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자긍심의 행진을 했던 그 순간들은 제주에서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왔던 퀴어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이후에도 전국 퀴어문화축제 도내 인권단체, 어려움에 낙관하고 있는 제주도민들과 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TV토론에서 몇몇 도지사 후보들의 성소수자 인권을 '합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아직 제주의 인권의식이 제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제주퀴어문화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혐오가 아니라 연대와 사랑으로, 가장 제주답게 혐오세력에 맞서는 제주퀴어문화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국 퀴어문화축제와 연대하며 혐오세력의 치밀하고 노골적인 공격들을 보았습니다. 제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혐오 앞에 자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주에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혐오에 맞서 제주의 성소수자 해방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연대발언

- 제주대학교 퀴어 모임 퀴어움 QUTE 회장

"제2회째를 맞은 제주퀴어문화축제와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어디보다 커뮤니티가 좁은 제주도는 퀴어 연대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런 제주도에서 두 번째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보다도 클 것입니다. 도내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를 반기는 이가 많습니다. 이 축제가 지속되고 개최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유 같은 것을 덧붙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퀴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퀴어문화축제와 언제나 연대합니다. 함께 키워나가는 퀴어움 QUT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수경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대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녹색당은 당내 평등문화 약속문 제1항에서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며,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주의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하지 않고, 혐오 발언에 항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원들의 활동 안에서 존중하며 긴장을 놓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치들이 사회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상관 없이 존중받는 모습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저는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여성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싸우기를 멈추지 않고, 성별에 따른 차별에, 나이에 따른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나 자신이 차별 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존중 받기를 내 모습 그대로 이해 받기를 원합니다.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사이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존재를 감춥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길가는 밴드의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어찌다보니 살아남은 우리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존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 작년에 함께 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며 머리를 싸매고 고군분투했던 게 떠오릅니다. 올해 제주녹색당은 부스참가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제주의 인권 조례의 제정으로 가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한 걸음이었으면 좋겠고, 매해 참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깊은 우정과 연대의 마음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민중당 제주도당 준비위원장 임원석

"발언에 앞서 먼저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희 민중당은 권력이 아닌 99%의 민중,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염원하고 실현하기 위해 실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단지 보편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이상하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권은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존중받고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분명 그렇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퀴어문화축제에 저희 청년민중당이 앞서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기자회견문 낭독 (별지 참조)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김기홍

4. 구호 및 마무리

- 사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이길훈
- 구호: "퀴어인권 말살하는 혐오세력 물러나라"

-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라고 오늘 아침에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도내 어디에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행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 구호: "모두가 하늘이다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 제주퀴어문화축제는 9월 29일 신산공원에서 12시부터 개최됩니다. 국내외 30여개 단체를 비롯해서 미국 등 해외대사관들이 참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 퀴어문화축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요원도 두 배로 증원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퀴어문화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 선언 기자회견문
2. 제주퀴어문화축제 소개자료